

강진군 한우산업 육성 박차...112억 투자사업 시행

한우 개량·사양 관리·마케팅 등 43개 세부사업 추진 청년 농업인 대상 전문자격 취득 지원·선진지 견학도

강진군이 한우 개량 등 한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군은 2025년 한우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총 112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우 개량, 사양관리, 품질향상, 마케팅, 조사료, 경영안정 및 기타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걸쳐 43종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 84억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한우 사육 농가들이 출하 때 높은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우 개량 사업과 품질 향상을 위한 보조자료 지원에는 12억원의 보조금

이 배정됐다.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업에는 59억원을 투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종자비 및 기계장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사양관리 자재와 시설 지원에 6억 7000만원, 마케팅 활동에 8000만원, 경영안정 사업에 6억 6000여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지원 사업을 통해 한우산업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군은 한우 사육 농가들이 보조사업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2025년 한우산업 지원 안내서' 700부를

제작해 읍·면사무소, 축협, 한우협회에 배부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각 사업의 개요, 신청 절차 및 신청 서식이 포함되어 있어 농가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청년 농업인들에게 축산분야 전문 자격 취득 지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한우 사육과 축산물 유통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청년 농업인들이 한우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사육 농가들이 겨울철 농한기에 다른 업종에 부업으로 일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이 한우 개량 등 한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진 한우 사육.

장성군, 내년 본예산 5708억 확정...8.4% 증액

공공질서·안전 분야 등...김한중 군수 "군민 체감형 사업 중점"

장성군이 새해 군민 체감형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을 마쳤다. 장성군은 최근 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보다 8.4%(440억원) 늘어난 57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선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137억), 내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7억원) 등 군민 안전 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 분야'는 교육기관 보조사업(17억원)과 미

래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초·중·고교 입학축하금(1억6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내년 '장성 방문의 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남 체전·전남장애인체전 개최(33억원), 장성호 수변길 관광 활성화사업(18억원) 등 '문화·관광분야'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사회·복지분야'는 어르신 효도권 지원(42억원),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22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농촌 활성화를 이끌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귀농

귀촌체류형지원센터 조성(50억원), 스마트육성지구 조성부지 매입(34억원)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황룡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7억원)도 예산에 배정됐으며,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110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110억원) 예산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2년 연속 교부세 감액 등 불확실한 세입 여건 속에서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을 이어왔다"면서 "내년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군 '2025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접수

27개 사업 내달 24일까지

장흥군이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도 농촌진흥시범사업'을 다음달 24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 농촌진흥 시범사업은 총 3개 분야(생활지원, 작물연구, 원예연구) 27개 사업으로 총 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농촌체험농장 기반조성 및 육성시범 ▲노동력 절감 비파와 재배단지 조성 ▲매밀 대규모 재배 전 과정 일관기계화 기술 시범 ▲감자 가을 재배 안정 생산을 위한 통째감자 활용 기술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지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 로봇 시범 보급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환경제어형 스마트재배사 시설 보급 시범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목 육성 시범 ▲표고버섯 시설재배 보급형 스

마트팜 지원 시범 등이다. 장흥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개 이상 사업 중복 신청, 장흥군 농업인 소득증대유망사업 연차제 및 보증인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선정 시 제외된다. 2025년 농촌진흥시범사업은 신청 기간 내(2024년 12월 26일~2025년 1월 24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장흥군청 및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2025년 농촌진흥시범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현지심사 후 장흥군 농업인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장흥 특화작목 육성 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미래 장흥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과 더불어 차별화된 농특산물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 겨울밤 빛축제 연장 "새해 첫날에도 즐기세요"

내년 1월 1일까지 운영키로 대형 전광판 미디어아트 전시

겨울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함평의 '겨울밤 빛축제'가 일주일 더 손님맞이에 나선다. 함평군은 방문객의 호응에 힘입어 겨울밤 빛축제 운영 기간을 7일 연장해 내년 1월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장된 관람 기간 동안에도 금요일·토요일 오후 4시부터 중앙광장 대형 전광판으로 이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먹거리존, 농특산물 판매존, 추억공작소, 나비공룡보존전시관, 다육식물관 등도 상시 운영한다. 크리스마스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군립미술관은 운영하지 않는다. 올해 함평 겨울밤 빛축제는 지난달 26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로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겨울밤 활활한 빛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과 연인 등 젊은 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올해 처음 선보인 함평 겨울



함평 겨울밤 빛축제가 7일 연장해 내년 1월1일까지 운영한다. 함평 겨울밤 빛축제 야간 운영 모습. <함평군 제공>

밤 빛축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축제가 1주일 연장된 만큼 남은 축제 기간도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 불회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국가유산청장상'

숲·다도 체험·음악회 등 프로그램 호평

천년고찰 나주불회사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 나주시는 불회사 전통 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국가유산청의 '2024년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유산청은 5개 분야 총 389건의 활용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 중 전국 46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전통 산사 분야'에선 나주 불회사를 포함한 3개 사업만 선정됐다. '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라는 제목으로 추진한 나주 불회사 문화 유산활용 사업은 '전통 산사', '생생 국가 유산', '향교·서원', '문화유산 야행', '고택·종가집'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주지스님(철인)과 함께하는 숲 체험', '1박2일 덕룡산 별자리 이야기', '비로 약차 다도·체다 체험', '산사 봄·가을 음악회' 등은 체험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나주시 다도면 덕룡산 자락에 자리한 불회사



나주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과 함께하는 숲 체험 활동. <나주시 제공>

(鐵龍寺)는 384년 인도승 마라난타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회사는 산림청이 국가 산림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가치가 높은 '비자나무·차나무 숲'을 품고 있다. 특히 사찰 차나무 근각지는 한국 다도의 중흥을 이끈 초의선사가 즐겨 마신 차나무가 현재까지도 집단으로 자생하고 있다. 이 차나무 때문에 사찰이 소재한 곳의 지명이 '다도(茶道)'가 됐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2000년 역사를 품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화순군, 지역경제·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소상공인 보증·융자금 이차보전 상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 동결 상품권 할인율 15%로 올리기로

화순군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화순군 종합대책에 따르면 군은 내년 1월 한달간 화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해 판매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다만 조정된 할인율은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QR, 카드)에만 적용된다. 지류형은 기존대로 10% 할인 판매된다. 화순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 보증상품을 발급한다. 이 상품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또 소상공인의 이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110억원 규모의 대



구복규(가운데) 화순군수가 최근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화순군 제공>

출금에 대한 연이자 3%, 개인연 단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물가 모니터링시스템도 강화하고 물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화순군과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담양군 고향사랑기부금 20억 돌파 '전국1위 눈앞'

전국 9곳 지자체와 상호기탁 서울·대구·성남 등 교류 활발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금 수익금 전국 1위가 유력한 담양군이 전국 지자체들과 활발한 상호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이병노 담양군수는 국내 자매결연도시 9곳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이번 기탁으로 김창규 제천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가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담양군은 앞서 대구 달성군, 서울 성북구, 용산구, 대전 서구, 충남 계룡시, 충북 제천시, 전남 신안군, 광주 남구, 경기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담양군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수익금이 2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전국 1위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연말 자매결연 지자체에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결심했다"며 "내년에도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